

안경환의 '법과 문화'



인사청문회의 허와 실

박근혜 정부의 '제2기 내각'이 출범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국무총리가 유임되고 두 장관 후보자가 낙마함으로써 빛이 바랬다.

그래도 행여나 하는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아직 3년 반도 더 남은 대통령의 임기다. 불통의 상징으로 비판이 자자한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성공한 지도자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마치 국왕처럼 행세하는 대통령과 각료가 얼마나 서로 소통할지, 여전히 걱정이지만 말이다.

매번 개각 때마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그러나 업무적 자질, 능력과 함께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용을 통해 은근한 정치공세를 퍼고 여당은 허물 감싸 안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국민여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다. 눈감아 넘길 수 있는 작은 허물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

공직자의 인사청문회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연방 상원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판사를 포함한 고위 공무원의 임명에 관여하는 일이다. 모든 공직 후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치성이다.

20세기 후반, 존 누난이라는 판사는 '뇌물의 역사'라는 책을 썼다. 미국역사를 통틀어 공직을 지탱해온 두 개의 기둥은 '정치'와 '정렬'이라고 했다. 당초에는 '정치'의 핵심으로 성적 순결성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문제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물러났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정치성이 더욱 강조된다.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만 심하게 흔들러도 나라가 제대로 지탱할 수 없다. 어찌 미국만의 일이었나?

세계투명성기구(TI)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매우 높다. 그만큼 한국인의 투명, 정직, 정령의 덕목이 뒤쳐진 것이다. 우리나라에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역사는 길지 않다. 아직도 정교한 세부 기준과 건전한 청문회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이례적인 발전, 성장을 이룩했다. 그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은 은연 중에 각종 비상식 관행의 혜택을 입었을 수가 있었다. 또한 비리로 지적되는 행위에 대한 당시의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선의의 후보자에게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인권위원장 직에 임명되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으나 (후일 그 자리는 청문회의 대상이 되었다.) 은밀한 검증과정을 통해 적지 않은 질문을 받았다. 나름대로 지적당한 내용을 소명했다. 터무니없는 내용을 제보하는 투서도 있었다고 한다.

만약 그 때 내가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병역 기피, 위장 전입, 그런 거야 없지만 '다운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

자기 표절?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은 학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과 대중이 만든 말이다. 앞서 발표한 글의 상당부분을 다음 글에도 되풀이하는 것이다. 논지를 확장시키기 위해, 또는 형식과 매체도, 독자도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던 행위였다.

중복 게재? 아마도 있을 것이다. 이미 발표한 논문을 새로 생긴 학술지에서 굳이 실겠다고 강경해서 내준 기억이 있다. 물론 '연구 업적'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유독은 간절히 바란다.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될 수 있다.

성홍희? 문제된 적은 없지만 행여 모를 일이다. 음주운전?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 만약 청문회에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정직한 것인가? '항의 정승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청문회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다. 현재 기준을 과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 부조리 투성이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다.

검증기준이 높아진 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미래 공직자는 분명히 '정치'와 '정령' 두 덕목에서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다. 공직은 이권이 아니라 명예로 자부수이다. 그 명예와 자부심은 자신이 가진 사적 자원과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공적 임무에 투입하는 데서 생긴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비리' '부패' '판피아', '전관 예우'로 얼룩진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제 2기 내각', 심기일전하여 국정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음 인사청문회에는 보다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보다 성숙한 검증절차를 거쳐 공직에 취임하기를 바란다.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社說

재·보선 당일 투표 어려우면 사전투표를

닷새 앞으로 다가온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투표율이 저조했던 데다 올해는 지방선거 탓에 선거일정이 여름 휴가철 한복판으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광주 광산읍과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을 포함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재·보선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니 총선'이라 할 만하다. 사실상 무승부로 끝난 6·4 지방선거의 연장전이고 100일을 넘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심의 가능성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광주·전남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산읍에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하고, 순천·곡성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측근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새누리당 후보로 바람몰이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승패를 가를 변수 중 하나는 투표율이다.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

당이 유리하다는 분석이지만 최근 선거에서는 어긋난 경우가 많다. 선관위는 이번 투표율이 30~40대를 맴돌던 역대 재·보선의 평균치보다 낮거나 비슷한 3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선거일이 여름 휴가 피크의 겹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독려 활동을 펴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1차 관문은 25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다.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투표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였다.

대의정치가에서는 투표율이 낮은 민의가 왜곡되고 대표성의 위기를 부른다. 책임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선거를 통해 민의가 올바르게 발현되어야 한다. 재·보선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휴가를 떠나더라도 가기 전에 반드시 소중한 표를 행사해야겠다.

코앞의 유병언 찾지 못한 한심한 검찰

검찰이 지난 5월25일 유병언 전 세모 그룹 회장의 순천 별장을 급습할 당시 유씨가 2층 벽장 속에 숨어있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코앞에서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별장에 유씨가 있다는 조력자 진술을 확보해 별장을 덮쳤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검거에 실패한 것이다.

검찰은 한 달이 지난 6월26일에서야 유씨의 여비서 신모씨로부터 유씨를 별장 2층 툇나루 벽 안으로 급히 피신시켰고,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칠 때까지 유씨가 그곳에 숨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서야 놓친 사실을 알게 됐다. 다음날 별장을 다시 수색했지만 유씨가 숨었던 벽 속에는 현금 8억3000만 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든 여행 가방 2개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유씨 수색이 끝나고 검찰 수사관이나 입안자들이 참여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광양만권의 미래를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광양만권 경제통합프로젝트'를 제안한다. 행정과 기업, 지역이 함께 수립할 경제활성화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 광양만권 조성 초기의 원대한 꿈도, 대한민국의 창조경제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다.

수원원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씨를 검거하겠다고 최근까지 큰소리를 쳤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유씨 검거작전에서 보여준 김·경의 헛발질과 무능은 거의 참사 수준이나 다를 바 없다. 경찰은 유씨의 시신이 발견됐는데도 숨진 유씨를 잡겠다고 40일 넘게 걸쳐 수사력만 낭비했다. 검찰과 경찰 간의 정보공유나 협조도 이뤄지지 않았다. 별장 급습 당일 현지 지리도 밝은 순천경찰서에서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순천구에서 놓친 사실을 벌인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한심한 검찰과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김·경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공직자들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전남지방경찰청장과 순천서장, 형사과장이 직위해제되고, 인천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국민들은 불신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無等鼓

노란 트레이닝복과 쌍절곤, 코를 만지며 내뿜는 독특한 기합소리. 서른셋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소룡(1940~1973)은 대한민국 젊은 청춘들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는 1973년 서울 피카디리 극장에서 개봉한 '정무문'을 관람하던 고 3 남학생의 삶도 바꿔놓았다. 40년의 세월이 흘러도 광(狂)팬은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이소룡 평전'을 출간했다. 평전에는 이소룡이 절친도를 완성한 과정, 데뷔작 '당산대왕'부터 유작 '사망유희'까지 작품 분석과 일화, 죽음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다. 안테군 전 EBS PD의 이야기다.

그는 2010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이소룡기념사업회를 만들고 매달 이소룡 영화상영회와 세미나를 열고 있다. 국내 최고의 이소룡 박물관을 만드는 게 그의 꿈이다.

저음이 매혹적인 가수 배호의 팬들은 여전히 그와 함께다. 1971년 29세의 나이로 요절한 배호는 '돌아가는 삼각지' 등 500곡을 발표하며 인기를 얻었다. 배호를 기념하는 전국모임(배기모)은 인천, 서울, 보령 등 전국 각지에 배호의 노래비를 건립하며 그를 추억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여배우 정유희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녀의 환갑을 맞아 그녀가 과거 발표한 노래 8곡이 담긴 한정판 LP가 발매된 것이다. 이번 앨범을 기획한 이 역시 정소년 때부터 그녀의 골수팬이었던 음반사 대표다.

유지인·장미희와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로 불렸던 그녀는 1975년 데뷔 후 '배꾸기도 밤에 우는가'로 대중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못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1984년 연애스캔들로 곤혹을 치렀고, 결혼 후 은막 뒤로 사라졌다.

며칠 전 가진 송בל 모임에서는 가수 김광석의 노래가 배경처럼 깔렸다. 아마도 그의 노래에 얽힌 기억 하나 짙은 누구나 갖고 있을 터다. 송בל회 참석자들 사이마다 각기 다른 노래에, 각기 다른 저음을 갖고 있었다.

그의 노래 21곡을 만날 수 있는 창작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24일~27일 5·18기념문화관)이 공연 중이다. 박광석, 김광석의 노래를, 그 노래를 부르고 들었던 전국모임(배기모)은 배호를 기념하는 전국모임(배기모)은 인천, 서울, 보령 등 전국 각지에 배호의 노래비를 건립하며 그를 추억하고 있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스타를 추억하는 법

특별기고



조 중훈 순천시장·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광양만권 경제통합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코와 여수국가산단, 울산산업단지 등 6860만㎡를 조성하여, 창원산업단지(2999만4000㎡)와 구미산업단지(2478만7000㎡)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부산항과 광양만권의 격차가 10년 전 7대3에서 현재는 8대2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광양만권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일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원체계의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광양만권 산업단지 관할 행정구역이 3개 시(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로 분산되어 있는데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하면서 관리기관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업부지가 2개 시에 걸쳐 있으면 기업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2개 시, 그리고 전남도에도 협의의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들에게 제공할 산업단지와 배후단지를 신속히 개발하여 기업에 대해 ONE-STOP 지원을 위해 설립했지만, 행정 지원체계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기업이 여전히 늘고 있다. 또한, 전남도가 지역간 경제적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에 집중적인 투자 정책을 펼치면서 상대적으로 광양만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성장key'로 광양만권을 내세우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향하는 문으로 키워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광양만권 활성화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생활권의 통합을 통한 광역행정의 그림을 그려며 기업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실행 면에서는 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3개 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분산함으로써 오히려 고객의 불편만 가중시켰다.

정부는 지난해 말 '동서통합시대 조성 기본구상'을 토대로 경남의 4개 시·군(하동군, 남해군, 진주시, 사천시), 전남의 4개 시·군(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구례군)을 범위로 설정하고 문화관광·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광양만권 내부의 경제활성화가 부진한 현 시점에서 그 범위를 넓혀 동서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불씨가 점화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따름이다.

영국 테라모드프락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원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여 10년 동안 실행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산업단지 재개발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도 광양만권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시하고 단순히 지역 내 격차해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체계가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주민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의 '원거버넌스 전략'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전남도, 3개 지방자치단체(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광양만권의 미래를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광양만권 경제통합프로젝트'를 제안한다. 행정과 기업, 지역이 함께 수립할 경제활성화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 광양만권 조성 초기의 원대한 꿈도, 대한민국의 창조경제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다.

종교칼럼



김 성 덕 화정교회 담임목사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사람이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박찬호 선수는 많은 돈을 받고 LA 다저스에서 텍사스로 옮겨 갔지만 부진한 경기력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면 공을 던질 기회가 없어서 더 힘들 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랜 그게 이 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내일 다시 홈런을 맞고 게임이 망가지지 않던 공을 다시 던질 수 있는 희망이란 게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부진하고 힘들더라도 나중에 은퇴해서 선수로서 공을 던지고 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서 느끼는 힘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현역 선수로 뛴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참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때'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야 합니다. 성경 전도서에서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전3 : 1)"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성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잠시 낙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할 때가 있다면 성공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때가 주어졌고, 그 주어진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흘러가는 세월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삶의 열정이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자신을 제책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삶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다면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는 70을 훨씬 넘기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일(일요일)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 주차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차안내봉을 손에 쥐고, 들어오는 차들을 열심히 안내하십니다. 교회에서도 70세는 모든 직분에서 은

퇴하는 나이로 봅니다. 그러나 봉사에 대한 노집사님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주자 봉사는 주어진 때를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편 126 : 5)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이나 세상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문제, 진로와 취업문제, 사업 실패, 경제적인 문제, 고민과 염려 등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참으로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하여,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본의 우경화와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하여 슬픔과 근심이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지나가면 언젠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